

# 바젤위 등 경고에 비트코인 급락

바젤위 “가상화폐 최고 위험자산” IMF·SEC 등도 경고·우려 잇따라 비트코인 국내거래액 4분의1 토막 김치 프리미엄도 6분의 1로 줄어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압호화폐 거래소 빙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가상화폐(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을 향한 악재가 계속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25%를 넘어섰던 ‘김치 프리미엄(김프)’도 한 달 전보다 6분의 1로 줄어 들었다. 국내 거래대금마저도 전월 대비 4분의 1 토막 나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13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바젤위위원회)는 최근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화폐를 최고 위험 자산으로 규정했다. 바젤위위원회 측은 “가상화폐는 은행을 불안정하게 해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를 보유하려는 은행은 위험 부담을 견딜 수 있는 부담금을 견딜 수 있는 자본금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바젤위위원회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 10개국 중앙은행과 은행 감독당국으로 구성됐다.

위원회가 가상화폐에 1250%의 위험 가중치를 부과하면서 은행들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기 위해선 투자액 만큼의 자본금을 쌓아둬야 한다. 결국 각국은 행의 입장에서는 가상화폐 투자에 나

설 유인이 감소한 셈이다.

이 외에도 ▲국제통화기금(IMF)의 비트코인을 범죄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에 대해 우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선물 투자자 대상으로 경고하는 등 비트코인을 향한 우려의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이은 악재 속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시장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상화폐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11시 기준 비트코인은 3만5781달러(약 3994만원)에 거래 중이다. 이는 최고점을 달성한 지난 4월 14일 대비 44.83% 하락한 수치다.

비트코인의 침체 속에서 국내 가상화폐 투자 심리도 위축됐다. 같은 시각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4100만

원대를 유지하면서 최고점 대비 49% 가량 내렸다.

특히 김치 프리미엄도 전월 대비 크게 줄어 들면서 국내 하락폭은 해외보다 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9일만 하더라도 김프는 25.4%까지 치솟는 등 지난달 내내 10%대를 유지해 왔으나, 이날 기준으로 3.74%까지 하락했다. 비트코인 가격 자체 하락에 더해 김프마저도 축소하면서 국내 비트코인 하락폭은 고점 대비 약 49.5%로 글로벌(44.8%) 하락 폭보다 5%포인트 가량 컸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대금 역시 크게 하락했다. 이날 기준 국내 4대 거래소 24시간 거래대금은 5조108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4월만 하더라도 하루 거래대금이 22조원에 달하면서 코스피 거래대금을 웃돌았지만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 “디지털화 따른 생산성 양극화 실업엔 생계지원 등 고려해야”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일부 플랫폼사 온라인 장악 댄 생산자·유통업자 손실 가능성

〈주요 노동플랫폼 사례〉

서비스 유형	외국 사례	국내 사례
전문가	Fiverr, Upwork	위시켓, 크몽
심부름, 돌봄대행	RaskRabbit	애니맨
운전	Uber, Lyft	카카오대리
음식배달	Deliveroo	배달의민족
애완견 돌보기	DogVacay	팻닥

디지털 전환이 생산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그 정도는 업종이나 기업간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실업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생계지원 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3일 내놓은 해외경제포커스 ‘디지털 전환이 생산성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은 제조업에서는 스마트 팩토리가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고, 서비스업에서는 팬데믹을 계기로 디지털 노동플랫폼과 스마트 물류 및 스마트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제조업 디지털 전환의 대표적 사례인 스마트팩토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생산 시스템이다. 도입·운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 기술 고도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서비스업에서는 팬데믹을 계기로 디지털 노동플랫폼, 스마트 물류 및 스마트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노동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는 디지털 노동플랫폼의 경우 이용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업무 범위도 다양해지는 모습이다.

정보통신기술 접목을 통해 물류의 제반단계를 실시간 통제·관리하는 스마트 물류는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주도로 발전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에 무인화·자동화·원격화 등을 적용한 스마트 서비스는 식량, 의료 등 대

면서비스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이 진행 중이다.

디지털 전환은 일단 생산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개선효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한은은 “생산성 개선효과는 기업여건별·기술유형별·산업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디지털 전환에 수반되는 무형투자자 인력 디지털 전환과 생산성 개선 간에는 시차가 존재한다”며 “빅테크 등 일부 플랫폼 기업이 온라인 시장을 장악할 경우 약탈적 가격책정을 통해 플랫폼 기반 생산자·유통업자에 손실을 입힐 수 있고, 시장구조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은 대체효과에 유의해야 한다.

한은은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대체 효과가 일시적으로 크게 나타날 경우 일정 기간 생계지원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나 업종에 적응하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생산성 제고 및 신규시장 창출이 노동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해 일정 정도 시차를 두고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연장

금융위 등 코로나 장기화 영향 고려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 연말까지

오는 12월까지 코로나19 피해로 취약해진 개인채무자들은 은행을 통해 가계대출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가계 신용대출을 받아 연체 가능성이 높아진 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금융위원회와 전 금융권, 관계기관은 13일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을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

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을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의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 대출이 대상이다. 가계 생계비 차감후 월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가능하다.

단 연체 발생직전부터 단기연체(3개월 미만)가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3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

해야 한다.

프리워크아웃을 지원받게 되면 6개월 이상 원금 상환 유예(6~12월)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해 2월부터 올해 말까지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 및 매각을 자제한다.

금융당국은 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중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최대 1년)를 지난해 12월부터 연체 발생 시점 및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한다.

또한 캠프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 조치도 연장한다. 연체 발생기한을 올해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신한생명 비대면 강화 ‘마이바디’ 서비스

디지털 기반 비대면 헬스케어 생활·운동·식습관 등 설문 진단

신한생명이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신한생명은 모바일 스마트창구 애플리케이션에서 ‘마이바디(My Body)’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마이바디’ 서비스는 신한생명이 새롭게 출시하는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헬스케어 콘텐츠다.

이 서비스로 ▲생활습관 ▲식습관 ▲운동습관 등 건강설문 결과를 진단한다. 이를 통해 전국 오프라인 키오스크로 체중, 체지방량, 추정골량, 체지방률, 체형관정 등 약 16가지 건강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다. 키오스크를 활용한 건강 측정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설문 데이터를 업데이트해 이용자의 건강 상태도 주기적으로 체크 가능하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비대면 헬스케



어 콘텐츠인 ‘마이바디’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고 지속가능한 개인건강관리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고객 눈높이에 맞춘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해서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wdus0248@

# 고객 ‘할인’, 손보사 ‘손해율 감소’

## 탄 만큼 내는 UBI보험 쏟아진다

손보업계 UBI 보험 출시 잇따라 캐롯손보, 배달대행사과 제휴도

운전자 주행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운전습관연계(UBI)보험’이 손해보험사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UBI보험을 통해 고객은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손보사는 손해율 감소라는 윈윈(Win-Win) 사례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캐롯손해보험은 최근 운행거리 측정 장치인 캐롯플러그와 캐롯의 사물인터넷(IoT)플랫폼을 결합한 ‘퍼파일랩스’ 베타과정을 진행 중이다. 해당 서비스는 안전운전 등급을 총 3단계로 나눠 포인트를 지급한다. 포인트는 상품권 교환, 캐롯손보 보험상품 보험료로 사용할 수 있다.

캐롯손보는 최근 배달대행사인 ▲피엘지 ▲스파이더크래프트, 아이나비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링크웨어와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륜차 전용 UBI보험 개발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다. 협약을 통해 캐롯손보는 배달대행사와의 시스템 연동으로 라이더의 운행데이터를 공유받는다.

향후에는 데이터를 정제해 배달 운행의 특성이 고려된 이륜차 전용 UBI보험 개발에 나선다. 배달대행사는 이륜차 UBI보험을 통해 라이더들의 처우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삼성화재, KB손보, 현대해상도 UBI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티맵을 활용한 ‘티맵안전운전할인특약’을 제공하고 있다. 안전운전점수가 81점 이상이 되면 보험료 5%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손보사들이 안전운전특약을 통한 UBI보험 확대에 나서는 데는 고객과 손보사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일부 손보사가 할인율 및 점수 산정 기준을 조정한 데 있어 UBI보험의 지속 여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부 손보사가 특약에 대한 조정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몇 년 운영한 결과 평균 안전운전 수치가 높았던 만큼 인센티브 제도는 게 무력하게 느껴졌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전운전 점수를 높여 평균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지연 기자